

S-Oil, 아람코 3300억원 배당 “파문”

1/4분기 배당금 7008억원 달해 사상최대 ... 한진 참여에 배당특혜 논란

S-Oil이 3월28일 이사회를 열어 2007년 1/4분기 배당금을 역대 최대규모인 주당 8300원으로 확정했다. 총 배당금은 무려 7008억원에 이른다.

상장기업들의 주당 중간배당규모로는 사상 최고이며, 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연말 배당 규모와 비교해 볼 때 2005년 한국셀석유의 1만4500원과 2004년 SK텔레콤의 9300원에 이어 3번째이다.

S-Oil 차원에서도 그동안 사상최고였던 2005년 중간배당 2250원의 3.7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보통주 35.0%, 우선주 8.74%를 각각 보유한 S-Oil 대주주인 Saudi Aramco는 배당금만 3300억원 가량을 받게 됐다.

S-Oil은 배당지출에 따른 재원(가치)의 감소로 인해 당초 한진그룹에서 받으려던 자사주 매각대금을 당초 2조4000억원에서 2조1500억원 가량으로 2500억원 낮추어주었다.

당초 한진에 자사주 28.4%(보통주 기준) 가량을 매각하면서 주당 잠정 매각금액을 7만4979원으로 정했다가 6만7475원으로 내린데 따른 것이다.

한진은 후발 예정주주여서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주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2670억원 가량의 <기회비용>에 대해 감액조치로 혜택을 받은 셈이다.

S-Oil은 6월이나 9월말 분기배당을 실시해 왔으나 2007년에는 새 파트너(한진)를 맞이함으로써 기존 주주에게 축적된 유보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당을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각에 따라 현행 규정상 배당 가능이익에서 제외돼온 유보이익(9000억원 가량)이 복원됐고, 자사주 매각차익 유입에 따라 투자재원이 늘고 재무구조도 더욱 건전해진 만큼 잉여현금을 배당으로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Oil이 자사주 매각대금과 차익을 극대화해 회사가치와 이익을 높이기보다는 양대 주주인 Aramco와 한진그룹에 각각 배당금을 높여주고, 자사주 매입금액을 낮춰주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Oil이 한진의 자사주 매입대금이 유입되기 전에 유례없이 배당을 서둘러 실시한 것도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한진그룹은 자사주 취득일을 기존 4월2일에서 5월31일까지로 늦추고, S-Oil 자사주 인수를 위해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국공항 등 3개 계열사가 출자한 한진에너지의 자기자본을 5150만원에서 1조300억원으로 증액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8>